

- ## 주요 통계



## 주요 동향



### MOL·Novatek·JBIC, Arctic LNG 환적 위한 협력 계약 체결

■ Mitsui OSK Lines(MOL), PAO Novatek 그리고 JBIC(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가 Yamal LNG 및 Arctic LNG 2 프로젝트의 화물 운송에 부유식 저장장치(FSU·Floating Storage Unit)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함

- 상기 협력은 쇄빙 LNG 운반선에서 LNG 운반선으로 LNG를 환적하기 위한 FSU를 캄차카 연안과 무르만스크항에 설치하기 위한 것임
- FSU 건설로 LNG는 러시아 북극의 Yamal LNG 및 Arctic LNG 2 프로젝트에서 캄차카와 무르만스크의 FSU로 운송되어 유럽과 아시아로 선적될 예정임

■ FSU는 캄차트카와 무르만스크 환적항에 건설되며, 이를 활용 시 북극 항로를 통한 LNG 화물의 해상운송 비용이 최적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LNG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LNG 소비 시장에 적시에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운송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환적 경로 및 FSU 위치



출처: <https://www.mol.co.jp/en/pr/2019/19063.html>(검색일: 2019년 10월 1일)

---

**참고자료**

- a) <https://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mol-jbic-and-novatek-ink-agreement-on-arctic-ling-transshipment/>(검색일: 2019년 10월 1일)
- b) <https://www.mol.co.jp/en/pr/2019/19063.html>(검색일: 2019년 10월 1일)

## 제5차 동방경제포럼, 우리 정부 러측에 공동투자펀드 제안...양국 경제협력 실현 가속화 기대

### ■ 제5차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신북방·신동방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러 경제협력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정부의 대표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러 공동 투자펀드 설립을 제안함
-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관련한 한러 공동투자펀드 설립을 제안한다며, (펀드는) 관련분야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함
- 또한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불화수소를 사례로 들며 러시아는 불화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의 한국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이달 2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한러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함

-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 자본이 결합해 양자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공동위원회에서의 실질적 논의를 적극 제안함
- 나인 브릿지 계획과 관련된 공동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포함해 사업 전반을 이번 양국 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임

### ■ 한편 내년도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의 개최지인 울산광역시에서는 송철호 시장을 주축으로 약 20여명의 대표단이 이번 동방경제포럼 및 지방협력포럼에 참가했음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이번 2차 지방협력포럼의 연사로 나선 송 시장은 울산시는 대형 석유가스단지 건설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송 시장은 2020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울산 개최를 통해 북방 경제협력 중심도시인 울산 브랜드를 동북아의 석유 가스 물류 허브로 설정해 한러 에너지 협력 강화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임

## ■ 포항시는 올해 말까지 포항시-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간 유람선을 신규 취항시킬 예정임

-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와 한국 경상북도 도지사가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연해주정부 공보실이 밝힘
- 연해주정부는 새로운 유람선 취항을 위해 포항시에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취항으로) 투자자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흥미롭고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함

전명수 현지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6851973>(2019.9.8. 검색)
- b) <https://ria.ru/20190905/1558369200.html>(2019.9.8. 검색)
- c) <https://tass.ru/ekonomika/6851929>(2019.9.9. 검색)

# TechnoNICOL사, 금년 9개월간 수출량 2배 증대

## ■ 러시아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의 입주기업인 ‘TechnoNICOL’사가 금년 9개월간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증대시킴

- 수출이 2배가량 증가한 이유로는 ‘TechnoNICOL’사 하바롭스크 생산 공장의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 APEC국가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러시아산 단열재 등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TechnoNICOL’사의 하바롭스크 생산 공장은 올해부터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함
- 현재 본사는 3/4분기 수출 계획량을 달성했으며 2020년까지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량을 10배 이상 증대시킬 계획임

그림 1. ‘TechnoNICOL’사 하바롭스크 생산 공장



- 또한 단열재 등이 필요한 새로운 시장과 지역을 모색해 해당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한국과 일본 외에도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제품을 수출함
-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할 경우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나호드카항을 통해 운송하며 중국으로는 도로 및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함

## ■ TechnoNICOL 하바롭스크 공장 파벨 파쉬코브 이사는 제품을 수출하기 전 일본 대표단이 하바롭스크 석재 공장을 방문했으며 생산조직과 제품품질에 일본기업이 깊은

## 인상을 받았다고 함

- TechnoNICOL사는 화재안전, 압축강도,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준 GB를 준수해 제품을 생산함
- 또한 2019년 초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FM인증서를 받음
-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건물외관 및 지붕에 설치되는 러시아산 단열재이며 캐나다에서는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수요가 큼

■ 현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약 5%가 수출되고 있으며 본사는 2019년 말까지 'TechnoNICOL' 극동공장의 총 생산량 중 약 13%를 해외로 수출하고자 함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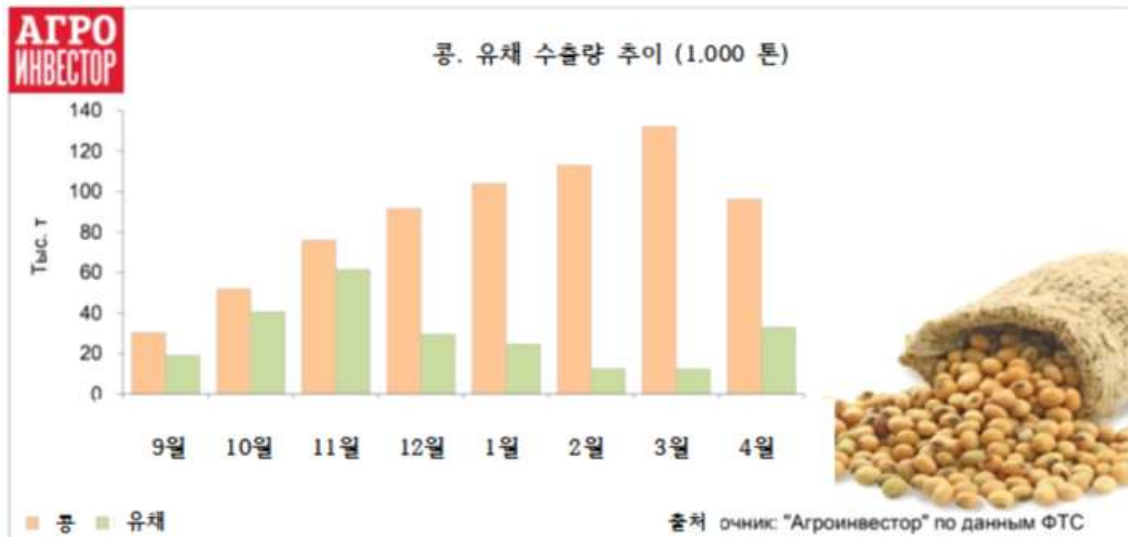
a)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493/>(2019.9.30. 검색)



## 러 농림부, 자국산 콩·유채에 수출 보조금 지급 예정

■ 타스통신은 러시아 농림부가 2020년부터 자국산 콩과 유채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2. 2017년 9월~2018년 4월 콩과 유채 수출 추이



- 러시아 농림부가 제안한 보조금 지급 계획의 자금은 약 42억 루블로 추정됨
- 엘레나 파스토바(Elena Fastova) 러시아 농림부 차관은 해당 예산 배정에 대해 재무부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전함
- 이를 위해 농림부는 다가올 국가 프로젝트 위원회에서 수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42억 루블의 자금을 요청할 예정
- 콩과 유채를 직접 수출하는 자국 생산자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를 목표로 하는 가공업자 역시 해당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농업 부문 총 수출 보조 예산으로 약 330억 루블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2019년)보다 약 50억 루블 감소한 수치임
-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 농산물 수출을 450억 달러 규모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수립 및 추진 중이며 보조금 지급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4년 크림사태로 촉발된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수입대체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자금률이 크게 상승함



- 최근엔 향상된 농업생산성과 방대한 농토를 활용해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두드러짐

이호건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leehkun2010@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minselkhoz\\_sdelaet\\_-eksportnye\\_stavki-\\_na\\_soyu\\_i\\_raps.html](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minselkhoz_sdelaet_-eksportnye_stavki-_na_soyu_i_raps.html) (2019년 9월 23일 검색)
- b)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selkhozeksport\\_dovedut\\_-do\\_gotovnosti-\\_subsidiyami\\_i\\_prochey\\_gospodderzhkoy.html](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selkhozeksport_dovedut_-do_gotovnosti-_subsidiyami_i_prochey_gospodderzhkoy.html) (2019년 9월 23일 검색)
- c) <http://ikar.ru/press/4294.html> (2019년 9월 23일 검색)
- d) <http://ikar.ru/press/4294.html> (2019년 9월 23일 검색)

# 조지아, 포티항에 신규 인프라 건설 착수...미국 투자 지원 받아

## ■ 10월 1일 조지아의 흑해 항만 중 하나인 포티(Poti)가 미국 투자 지원을 받아 신규 부두 건설 착수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 조지아 측에서는 나티아 투르나바(Natia Turnava) 경제지속가능개발부 장관, 조지아-미국 협력 투자사업의 주요 실무자였던 케네스 앤젤(Kenneth Angell) 등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이하 OPIC) 실무진들이 기공식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올해 5월 OPIC과 조지아측 프로젝트 사업자인 페이스 조지아(Pace Georgia)사가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총 사업비용으로 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442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프로젝트 1단계에 9,300만 달러(한화 약 1,118억 원)가 지출될 것이며, 여기에 5,000만 달러(한화 약 601억 원)는 OPIC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되었음
- 25헥타르의 면적을 자랑하는 신규 부두는 배수량 6만 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 및 계류해 최대 5백 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또한 신규 부두는 최대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

## ■ 한편 포티항의 신규 사업으로 조지아 정부가 별개로 추진 중인 아나클리아(Anaklia) 신항과의 관계 또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 포티항은 조지아 내 흑해 최대 항만으로 연간 600 ~ 65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해 왔음. 이에 덴마크의 APM 터미널스(APM Terminals)는 2011년 4월 포티 항만공사 측과 시설구매 계약을 체결, 대규모 심해 항만(deep-sea mega port)으로의 확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음
- 그러나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국제정치적 리스크와 각 부처 및 기업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및 부패, 비효율성 등 내부적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비교적 강했던 아나클리아 신항 건설계획 또한 수립 및 진행되고 있었음
- 6월 3일 조지아 경제지속가능개발부 측은 포티항의 심해항 개발 허가를 발표했고, 이에 아나클리아 개발 컨소시엄(Anaklia Development Consortium)과 해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했음. 투르나바 장관은 허가한 적이 없으며, 산하기관인 기술건설감독국(Technical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Agency) 그리골 카카우리제(Grigol Kakauridze) 국장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를 해임하며 진화에 나섰다

- 일련의 사건들은 부처 지휘체계 취약성, 정경유착 및 그 저변에 깔려있는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로비와 압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 지정학적인 가치로 인해 아나클리아항이 심해 항만으로 공식 지정되었지만, APM 터미널스를 비롯한 포티항의 이해 당사자들은 “이 나라의 물동량은 항만 두 곳이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다”며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때문에 미국자본의 투자는 포티와 아나클리아의 출혈경쟁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그림 3. 포티항 신규 항만 시설 계획도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참고자료

- [https://denizxeber.az/2019/10/01/gurcustanda-yeni-d%C9%99niz-limaninin-insasina-baslanilir\(2019.10.1. 검색\)](https://denizxeber.az/2019/10/01/gurcustanda-yeni-d%C9%99niz-limaninin-insasina-baslanilir(2019.10.1. 검색))
- [https://www.pace.ge\(2019.10.1. 검색\)](https://www.pace.ge(2019.10.1. 검색))
- [http://georgiatoday.ge/news/15867/Poti-%26-Anaklia-Battle-for-Deep-Sea-Dominance\(2019.10.1. 검색\)](http://georgiatoday.ge/news/15867/Poti-%26-Anaklia-Battle-for-Deep-Sea-Dominance(2019.10.1. 검색))
- [https://jamestown.org/program/georgias-anaklia-deep-water-port-faces-a-new-challenge/\(2019.10.1. 검색\)](https://jamestown.org/program/georgias-anaklia-deep-water-port-faces-a-new-challenge/(2019.10.1. 검색))
- [http://accentnews.ge/newsdetails.php?lang=2&NewsID=5540\(2019.10.1. 검색\)](http://accentnews.ge/newsdetails.php?lang=2&NewsID=5540(2019.10.1. 검색))



## 주요 통계



표 1. 2019년 7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88 (-1.2%)	6.4 (+0.4%)	18.28	+0.5%
북극해	2.71 (-0.5%)	6.38 (-3.2%)	9.08	-2.2%
발트해	9.28 (+0.5%)	12.04 (+0.6%)	21.32	+0.5%
아조프-흑해	10.32 (+3.5%)	14.7 (+1.3%)	25.02	+2.2%
카스피해	0.3 (+5.9%)	0.37 (+210.63%)	0.68	+2.9%
합계	34.51 (-0.8%)	31.88 (-0.4%)	74.38	+0.6%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75,956.5	76,596.4	375,092.0	76,479.3	864.5	117.1
광물 제품	1,100,495.0	6,460.2	1,100,494.7	6,460.2	0.3	0.0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93,070.1	5,846.4	993,069.8	5,846.4	0.3	0.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471.6	71,583.2	4,052.9	71,323.9	418.7	259.3
가죽원료, 모피 제품	7.9	1,304.4	7.9	1,304.4	0.0	0.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2,832.5	6,927.4	92,739.8	6,795.0	92.7	132.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23.4	36,490.7	122.8	36,489.2	0.6	1.6
금속 및 금속 제품	48,909.5	53,060.8	48,795.3	52,605.7	114.1	455.1
기계류	20,491.7	447,400.5	20,298.3	447,383.9	193.5	16.6
기타	174,976.0	40,245.3	174,868.2	40,245.3	107.8	0.0
합계	1,818,264.1	740,068.9	1,816,471.8	739,086.9	1,792.3	982.0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0	0	0	7	0	0	0	7	-	-	-	-
냉동어	106,307	175,439	1,796	3,038	106,307	175,439	1,796	3,038	0	0	-	-
연어류	6,993	23,366	-	-	6,993	23,366	-	-	0	0	-	-
넙치	612	2,969	-	-	612	2,969	-	-	-	-	-	-
가자미	383	490	-	-	383	490	-	-	-	-	-	-
가자미류	5,835	5,244	-	-	5,835	5,244	-	-	-	-	-	-
청어	8,885	25,027	-	-	8,885	25,027	-	-	0	0	-	-
대구	57,267	78,190	-	-	57,267	78,190	-	-	-	-	-	-
명태	152	287	-	-	152	287	-	-	-	-	-	-
농어	3,038	15,618	-	-	3,038	15,618	-	-	-	-	-	-
간, 곤이 (어란)	1,245	2,100	-	-	1,245	2,100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959	3,037	-	-	959	3,037	-	-	-	-	-	-
생선필렛, 어육	9	157	49	146	9	157	49	146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8,626	135,282	106	617	8,626	135,282	106	617	-	-	-	-

갑각류	7,666	127,632	2	65	7,666	127,632	2	65	-	-	-	-
계류	3,977	12,720	-	-	3,977	12,720	-	-	-	-	-	-
조개류	202	503	-	-	202	503	-	-	-	-	-	-
가리비류	3,104	6,330	-	-	3,104	6,330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843	3,276	64	252	843	3,276	64	252	-	-	-	-
수산무척추동물	555	1,915	-	-	555	1,915	-	-	0	0	-	-
해삼류	289	1,361	-	-	289	1,361	-	-	0	0	-	-
성게류	0	0	-	-	0	0	-	-	-	-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3월, 1~6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 참고자료

-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